

# 이름을 얻음은 새 존재로 탄생하는 것과 같다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 막혀

◎ 애 그 이름 손오공!

눈썹은 수보리 존자, 원숭이 왕의 바탕을 꿰뚫어 보았겠지요? 애기를 들어 보니 천지의 정기를 받은 출생도 범상치 않고, 죽음을 극복하겠다는 큰 뜻을 품은 것도 가상하고, 앞날의 훌륭한 성취를 기약할 만한 제자 하나 들어왔구나! 애고, 이빠라! 귀여워라! 훌륭한 제자를 보는 스승의 마음,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그래도 직업이 직업이라 조금은 느낍니다.

그렇지만 스승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그렇게 이쁘고 귀여워도 그것을 함부로 다 드러내면 안된다는 겁니다. 자칫 건방져지기 쉽죠. 아직은 철없는 제자니까요. 그런 조심스러움에 기쁜 맘에 속으로 웃으면서도 짐짓 근엄하게, 담담한 표정으로 입문식을 겸하여 우리 원숭이 왕에게 이름 석자를 내립니다. 앞으로 엄정하게 유명해지는 손오공(孫悟空)이란 이름!

수보리 존자께서는 한번에 척! 지어주셨지만, 도인의 가벼운 한마디에도 깊은 뜻이 숨어 있는 법! 역시 심오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하겠지요? 삼패 선생의 오랜 작명 경력에서 나오는 성명풀이를 한번 해 봐야 하겠네요. 음? 정말 작명도 하느냐구요? 그렇게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십니까! 작명이야 기본 중에도 기본이죠. 다만 작명을 잘 안해줄 뿐, 실력이야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바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런데 제 작명법은 분명한 원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작명에도 현실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중에 기본입니다. 어렵게 말하니까 그렇고요, 간단하고 쉽게 말해 요즘은 한글 시대이니만큼 한글 중심으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한문이 중심이던 세상에서는 한자의 뜻이 무척 중요했죠.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한자 뜻만 생각하고 지으면 정말 웃기는 이름 많이 나오죠. 김치국(金治國), 고생만(高生滿), 우동집(吳東集), 구만두(具萬斗), 임신중(任新中), 고소한(高昭漢), 구수한(具秀漢), 조구만(趙俱滿), 주동희(朱棟熙), 하지만(河祉滿), 성교중(成峯重), 비연태(費然泰)... 기타 등등.

이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 이름으로 불리며, 또 자신도 그 이름으로 자신을 생각하기에 거기서 오는 암시가 성격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운명에도 영향을 끼치겠지요. 그런데 그 이름을 위와 같이 우습게 지어 보세요. 예전 같으면 한자 뜻을 생각하는 경향이 좀 강하거나 좀 봐줄 수 있었지만 이젠 아니라 말입니다. 소리에서 오는 영향이 이제 더 크게 된 셈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 원칙이 또 하나 생겨납니다. 글자 그대로 발음되는 이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근래(朱勤來) 같은 이름은 읽을 때 '주글래'가 됩니다. '석희'는 '서키'로 발음되죠. 가능하면 이렇게 발음이 글자 그대로 나지 않는 이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음법칙과 구개음화 같은 것들을 고려하며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몇 가지 원

칙 지키면서, 가능하면 한자로 표기할 경우 뜻도 좋은 이름을 두어개 지어 놓고, 아기의 부모나 어른들이 여러번 불러보면서 가장 느낌이 좋은 이름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나마 하면 아기에 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잘 아는 사람들이 짓는 이름이 그 아기에 가장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이름은 그 이름이 가리키는 대상에 어울려야 합니다. 질그릇에는 질그릇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야지, 거기가 고려청자에 어울리는 이름을 붙여야 되겠어요? 아무리 거창하고 좋은 의미의 이름을 지어도 어울리지 않으면 오히려 해가 된다고 봅니다. 요새와 같은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자신의 소질만 잘 개발하면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할 수 있는데,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오히려 타고난 소질을 가로막는 이름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 들어서 잘 짓는다는 게 오히려 앞길 가로막는 결과! 아이와 정감이 통하지 않는 작명가가 지은 이름에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 많다고 하네요.

제가 작명을 잘 안해드리게 되는 것도 이런 작명의 원칙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저한테 작명 부탁하면 저는 이런 원칙을 잘 설명해 드리고, 부모나 조부모가 두 개 정도의 이름을 지어서 식구들이 계속 불러보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맘에 드는 것으로 하라고요. 그래도 결 결정하기 힘들어 하면, 삼패 선생 비결에 의해 두 개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를 골라드린 경우는 몇 번 있습니다. 어떤 비결이냐구요? 그건 영업상(?) 비밀에 속합니다. 하하.

자~ 이제 저의 작명실력에 대해 믿음이 가시죠? 음? 믿음이 싸신다구요? 백년 안에 죽는다는 것을 내다본다는 예지력 비슷하게 뭐 하나 시월스럽고 신통한게 없어요? 애고! 제발 그렇게 무슨 희한한 것 찾는 버릇부터 좀 고치세요. 진리란 평범한 데 있는 거랍니다. 평범한 가운데 비범함을 갖춘 삼패 선생의 참 모습을 알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실력을 손오공 이름 풀이를 통해 보여 드리기로 하죠.

자! 손(孫)이라는 성(姓)은 무슨 의미나 하면... 원숭이 손(孫)이 자(子)가 있어요. 거기서 짐승을 뜻하는 '큰 개' '견' 자입니다) 변을 떼어내고 성을 삼았으니... 이는 동물적인 차원을 넘어선 존재로 거듭나려는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겠죠.

우리 인간이란 본디 신과 동물의 중간이라고 하잖아요? 원숭이 왕은 이미 그냥 평범한 짐승인 원숭이로 사는 것을 거부하고 구도의 길에 오른 존재. 그러니 이미 동물적인 차원을 넘어선 의지가 확고합니다. 이런 뜻을 살려서 성을 내린 것이라고 해석해 두죠. 거기에 손(孫)자를 깨뜨리면 '자(子)+계(系)'가 되는데 자(子)는 남자 아이요, 계(系)는 어리고 가늘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영아(嬰) 뉘로 돌아가는 것을 숭상하는 도교와 신선도에 부합한다는 거죠.(이것은 서유기 원전에 나오는 수보리 조사의 풀이임)

그다음 '오' (悟)자는요, 하하. 돌림 자라네요. 이름



그림: 최주현

“ 수보리 존자에게 ‘손오공’ 이름 받아 작명은 성격과 인생에도 영향 미쳐 구도의 길 걸으란 의미의 ‘오공’ ”

짓는데 항렬 있잖아요. 조사 문하의 제자들에게 내리는 돌림자가 마침 '오' 자였다는군요. 그런데... 이 조사 문하의 돌림자를 전부 보면 그게 정말 의미 심장합니다. 광대지혜(廣大智慧)의 열네자인데, 이걸 뜻에 따라 묶으면 광대지혜(廣大智慧), 진여성해(眞如性海), 영오원각(靈悟圓覺)이 되겠습니다. 크고 넓은 지혜, 진여의 성품 바다, 훌륭하고 완전한 깨달음. 그런 뜻이 되죠.

전부 합해 말하면 본래적인 완전한 진여 성품을 깨달아 성취한다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요약한 것이 이 열네 글자! 그러니까 우리 원숭이 왕도 이런 가르침을 지닌 부처님의 집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 '오' 자가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공' (空)은 무엇을 깨달을 것이냐에 대한 목포 제시라고 할까요? 오공(悟空)이라면 바로 '공을 깨닫는다'는 뜻이 되죠. 그리고 '공'이란 불교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시겠죠? 여기서 그 뜻을 풀이한다는 것은, 저야 못할 것

이 없지만 지면이 허락하지 않겠네요. 모든 존재들이 똑 떨어진 자기만의 알맹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만경으로 서로 의존해 있다는 연기(緣起)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공' 이라고 할까요? 연기와 공은 손의 앞 뒷면과 같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그러한 연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연기를 본 자는 여래를 본다'는 말도 있죠.

어? 나칠게님, 그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는 거라구요? 영? 세상이 온통 광이란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을 깨닫는 것이랑요? 로또 복권 샀다가 평생 본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을 너무 어렵게 말하지 말라구요? 아우~ 정말 저 뻔하게 하지 말고, 좀 자중해 주세요!

자, 나칠게님 땀에 흐트러진 시선, 다시 모아 주세요. 손오공의 이름 한자 한자를 풀어 보았죠? 그럼 그런 자들로 채워진 손오공의 전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살펴 보죠.

“이제 짐승의 세계를 벗어나 구도자의 길을 걷게 된 그대, 불사(不死)의 도를 향해 나아가도다. 온 누리의 참된 모습을 바르게 깨달아 도를 성취하라!”

대중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꼭 이름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요.

아무튼 이제 원숭이 왕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름을 얻는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뭐, 이미 있었는데 이름을 얻는 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나구요? 그 물음에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김

춘수의 시를 소개드리는 것이 좋겠네요. 아마 이름을 얻는다는 것의 의미가 팍팍 느껴질 거예요.

꽃 - 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었이 되고 싶다. 나는 나에게서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어떠세요? 원숭이 왕이라고 불리던 것과 손오공이라는 이름을 불리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이제는 우리도 원숭이 왕이라는 칭호 대신 손오공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빛나는 이름 앞으로 계속 부르게 되겠죠? 담 시간에 뵈기로 합니다.

봉침교육 | 숙박휴양

## 건강힐링캠프

[경기도 양평]

원장 천범석

암환자 전문 영양소  
수시 건강상담  
유기농 죽염식단

황토 통나무집에서...

본연의 자가 면역력을 높여 내몸 스스로가 자연치유 할 수 있도록 돕는 자연치유요양원

http://healthycamp.co.kr  
(검색창에서 '건강힐링캠프'를 치세요)

전화 070-8884-8599 건강토론

## 거제멸치.미더덕

정지역

거제 가조도 섬마을, 작은사찰내 삼성각 건립을 위하여 지역 특산물 판매에 동참하였습니다.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사찰과 불자님 단체구입 환영  
아파트, 중소기업 단체 환영

참멸치, 청어멸치, 다신멸치, 실치 등  
1박스 1.5kg (가격 10,000원 부터)

미더덕 2kg (가격 13,000원) 아이스박스 택배

택배는 멸치 5박스, 미더덕 10kg 주문시에는 택배비 무료

※ 소비자 및 직거래로 신선도 유지 및 재고는 일체 취급하지 않습니다.

끈득끈득 멸치 | 그윽한 향 미더덕

농협 352-0211-4308-13 (예금주: 박동열)  
구입문의: 055)633-9766 / 010-7169-9878  
거제 금룡정사 대정 스님(두손모음)

## 건물안내

- 위 치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용암리 272-27번지
- 2층 건물 한 채, 한옥기와집 한 채
- 대지 400평, 전 400평
- 용 도 : 사찰, 납골당, 양로원, 요양병원  
여러가지 적합, 현재 별장으로 사용중
- 가 액 : ① 4억 5천만원 (조정가능 합니다.)  
(1억 5천대출안고 2층 건물 및 토지 상가하고도 나머지 교환 가능함)  
② 1억 5천대출안고 3억 현찰 가능함

---

- 위 치 : 전남 신안군 압해읍 북룡리 874-9번지
- 2층 143평, 창고 1동
- 바닷가 바로 앞, 평당 14만원 (조정가능)

■ 상담전화 : 010-8666-6210

##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옹골케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